일 주 문



49기 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경내서 일반남녀 50명을 대상으로 49기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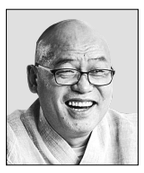
파라미타 정기총회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은 1월 20일 오후 5시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5층 마루홀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월 11일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경내서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후원금 전달

자명 영덕 기원정사 주지 스님은 구랍 27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320만원을 기탁했다.



교수불자회장 연임

심익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구랍 27일 열린 정기총회서 16대에 이어 17대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간.



공불련 임원연수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2월 11~12일 장성 백양사서 '2017(정유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한다.

"성철 스님 일화로 배운 불교"

백련재단, 〈성철 스님~〉 독후감대회
전국서 70작품 접수, 대상 박경주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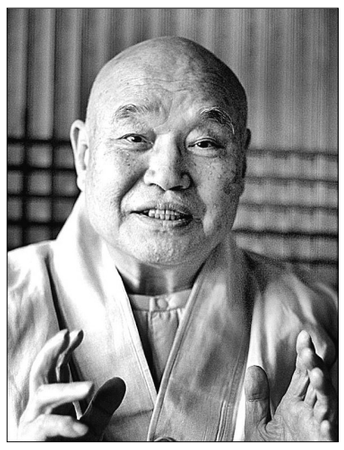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로 주최한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회서 박경주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주최하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가 주관한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회 시상식이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서 70여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박경주(홈스쿨링) 양이 대상인 동국대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경화(정광고)·구민주(동대부여고) 학생이 각각 특별상과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박소현(안곡고) 외 8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법공양은 최고의 선근회향"

Interview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30년 이어진 법보시 인연
〈화엄경〉 1만권 회향 발원
"저작권 무관, 맘껏 배우길"

"100년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요, 하루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입니다. 법으로 닦은 단 하루의 마음이 천년 동안 중생의 복덕을 쌓게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법공양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인데 법공양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랍 22일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은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서 〈대방광불화엄경〉 81권 가운데 정행품과 현수품이 담긴 강설집 제14권 3000권을 법보시했다. 이후 28일 범어사 염화실에서 만난 무비 스님은 "법공양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맑게 하는 운동이기에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이었다. 스님은 법공양 운동을 전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담은 자신의 책에는 저작권이란 말을 빼도 된다고 강조했다.

"화엄경에는 보시 바라밀을 강조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화엄경을 공부할수록 법공양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집니다. 오래 전부터 해온 법공양 운동을 더욱 펼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제 책과 자료를 복사해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무비 스님의 법공양 운동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범어사에서 처음 법공양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A4 용지에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씀을 적어 나눠주기도 하고, 도처에 둬 누구나 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오늘날 번듯한 책으로 법공양을 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비 스님의 법공양은 비단 책뿐 만이 아니다. 법회와 강설을 녹취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는 스님의 경전 강의 녹취부터 시작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유마경〉 등 대부분의 경전 강의를 보고 공부할 수 있다.

스님은 법공양에 대해 불법(佛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불사라 말했다. 그런 의미로 스님은 쉬지 않고 법공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스님은 2014년 4월 〈세주묘엄품〉을 시작으로 현재 화엄경 총 81권 가운데 51권까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발간했다. 아울러 새롭게 책을 발간할 때마다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820권을 법보시하고 있다. 또 범어사의 '1000일 화엄대법회'가 열리는 초하루마다 300권을 추가로 보시한다. 얼마 전 구미 남화사에서 열린 화엄법회에서는 총 1100권을 법공양했다.

"저의 법공양은 계속될 겁니다. 2018년 10월에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장 애착이 있는 〈화엄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좋았기에 볼 때마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완역을 마칠 때 1만권을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뜻을 전했다. 총 81권인 〈화엄경〉을 모두 1만권으로 법공양하는 것이니 돈으로 환산해도 6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국사회에 법공양 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대만에 〈성엄법사 108 자재어〉는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됐습니다. 총 10만권이 넘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왔지요. 저도 발심을 하게 되고 환희심이 생깁니다. 법공양은 최고의 선근회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나눠주고 법을 받아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편, 무비 스님은 1943년 영덕에서 출생했다.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0여 년 선원 생활을 하고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했다.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며 법공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새 법당서 호국불교 되새기길…"

군종교구, 30사단 92여단 호국쌍용사 낙성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드러났던 군법당이 새롭게 건립돼 불자장병들의 의지처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구랍 27일 경기도 양주 소재 육군 30사단 92여단서 호국쌍용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호국쌍용사는 1992년 오봉산 석굴암 초안 스님의 원력 아래 50평 규모의 전통양식 법당으로 창건됐다. 이후 25년간 법회를 봉행해왔으나 최근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상 하자가 확인 돼 지난 4월 신축법당 기공에 들어갔다. 새로 건립된 법당은 대웅전 45평, 요사채 36평 규모다. 최신 영상·음향시설을 갖췄으며 총 예산 11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뤄진다'는 〈무량수경〉 내용을 설한 뒤 "군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심어주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의지처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성도 30사단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장엄한 도량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스님과 지역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호국불교를 배우는 전법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 군종참모 혜문 군승은 장병들을 대표해 "부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복덕과 지혜 구족하여 뜻하는 바 마음같이 원만히 이뤄져 늘 서광이 비치는 부대와 법당이 되도록 해주시옵오서"라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호국쌍용사는 향후 편안한 전법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과 외부 화장실을 오봉산 석굴암 도일 스님의 지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고양시사암연합회장 대오 스님, 길상사 보산 스님, 정수사 지월 스님과 군 관계자, 불자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우수한 전법활동에 감사"

조계종 포교원, 우수도량에 물품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서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사찰 포교물품 전달식'을 열고, 국제선센터·개운사·청계사 등 사찰 18곳에 노트북·빔프로젝트 등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노인복지기금 1500만원 쾌척

통천사 선지 스님, 신안복지재단에



적멸보궁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대구불교사암연합회장)은 구랍 21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신안복지재단 김은경 원장에게 노인의료 복지시설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선지 스님은 성도재일(1월 5일)에 전달할 장학금 200만원을 대구불교사암연합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선지 스님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라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타스님들의 특별한 나눔

마가 스님, 성탄절 백사마을서 자비나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비롯한 스님 2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구랍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서 '제2회 산타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성탄절이지만 건강과 개인적인 형편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어르신 100여 명에게 연탄과 떡국 등 선물을 전달하고, 음악공연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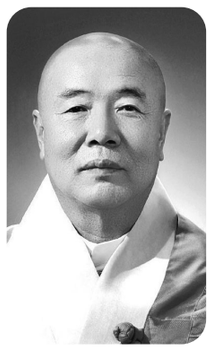
謹賀新年

대한불교원효종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성암 총무부원장 보원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무공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종학원장 옥천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교육원장 행광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석해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신년사

정유년 새해 새날 아침,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혼란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것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실을 찾는 다면
새해 새날 밝은 해처럼 둥글고 모남이 없이
화합과 상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유년 새날 아침. 모든 불자님 가정에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원효종 종도
여러분의 무궁한 정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